

제58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

'살려서 돌아오라, 살아서 돌아오라'

문 대통령, 기념식 참석... 핵심공약 '국가직 전환' 후 처음 소방공무원 격려·헬기 레펠 등 고난도 구조교육 훈련 참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일 오전 충남 공주시 중앙소방학교에서 열린 제58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소방공무원을 격려했다.

올해 소방공무원 신분법이 국가직으로 일원화 된 후 첫 기념식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핵심공약 중 하나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약속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국회에서 소방공무원 신분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률안 등이 통과되자 사회관계장관비서관(SNS)에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축하한다"며 "너무 늦게 이뤄져 대통령으로서 최송한 마음"이라고 적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소방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2017년 취임 첫째와 함께 이번이 두 번째다. 2018년에는 '공정경제 전략회의'를 주재했고, 2019년에는 모친 고(故) 강만숙 여사가 별세해 참석하지 못했다.

이번 기념식은 '살려서 돌아오라, 살아서 돌아오라'는 주제로 열렸다.

김훈 작가의 수필집 '리얼을 품다' 중 '불 자동차'라는 글에서 발췌한 문구다.

각종 재난·재해 현장에서 소방관

과 구조자 모두 안전하게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김정숙 여사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신열우 소방청장 등과 기념식 전 입장, 식전 행사부터 참석했다.

지난 2일 입가를 시작한 신 청장은 소방장학생(소방장 경제) 출신으로 처음 소방청장에 올랐다.

이밖에 순직 소방관과 유가족, 현직 소방관 및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 사회에는 소방공무원 출신인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여했다. 오 의원은 국회의원 최초로 소방의 날 기념식 사회를 맡았다.

기념식은 문 대통령의 기념사와 각 계각층의 감사 인사, 유공자 훈·포상, 명예소방관 위촉장 수여식, 화재진압 시연으로 구성됐다.

여성 최초 대형 사다리차 운용사인 서울 영등포소방서 소속 유지연 소방장이 국가에 대한 경례문을 낭독했다.

여야 국회의원과 지난 10월 발생한 울산 고층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구조된 시민, 가수와 배우 등이 소방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오전 충남 공주시 중앙소방학교에서 열린 '살려서 돌아오라, 살아서 돌아오라'를 주제로 한 제58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이 끝나후 소방관을 향해 박수를 치며 인사하고 있다.

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은 영상이 상영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소방청 조순호 소방청장 등에게 흉보근정훈장을 수여하는 등 총 4명의 개인과 1개의 단체에게 정부 포상을 수여했다.

드라마와 영화에서 소방관 역할을 맡았던 배우 이준혁씨와 강일산씨

파해 복구 활동에 앞장선 배우 조보아씨는 명예소방관에 임명됐다.

소방공무원들은 지난 10월 울산 고층아파트 화재를 바탕으로 고층복합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구상해 화재진압 시연을 펼쳤다.

이후 배우 박해진씨가 '소방관의 기도'를 낭독하며 행사가 마무리됐다.

다.

문 대통령은 행사 종료 후 화재진압 시연에 참여한 소방대원들을 격려했다.

이후 실내종합훈련장으로 이동해 헬기 레펠, 수평구조, 수직구조 등 고난도의 구조교육 훈련을 참관했다.

/뉴시스



전북도, 청년친화 현정대상 수상

전북도가 '2020 청년친화현정대상' 광역자치단체 소통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청년친화 우수자치단체로 인정받았다.

'청년친화현정대상'은 국회사무처 소관 사단법인 청년과 미래가 주관해 청년들의 삶을 위해 노력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 더 나은 청년사회 구성에 기여하고자 시상하는 상이다.

선정위원회는 청년위원 100명과 교수, CEO, 언론인 등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된 정책과 입법, 소통, 지원 등 청년의 삶의 질 향상 기여 정도를 평가하는 청년친화지수가 심사 기준이다.

전북도는 그동안 다양한 청년정책과 일차리를 추진하면서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속적으로 소통을 통해 청년의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청년 축제'는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나서 사업에 대한 제안부터 기획까지 참여해 추진한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청년들이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우수사례로 꼽혔다.

송하진 도지사는 "올해 8월 5일 청년기본법 시행으로 전북 청년정책 추진과 청년들이 정책결정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청년의 눈높이에서 청년 소통을 통해 청년 친화적인 청년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민주, '윤석열 검찰' 과 전면전

현정부 핵심정책 '탈원전' 수사에 분노 폭발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공세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대대적 압수수색을 놓고 절정으로 치달는 모습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 때부터 검찰의 '정치 개입' 불만이 팽배했던 민주당은 검찰이 이제 '정책 개입' 까지 나섰다며 분노를 식이지 못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윤 총장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탈원전' 정책을 겨냥한 것을 엄중히 보는 분위기다. 윤 총장이 추미에 법무부장관과의 검찰개혁 갈등을 넘어 여권 핵심부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서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윤석열 검찰'

과의 전면전을 통해 윤 총장 사퇴 압박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등에 대한 국민의힘의 고발이 있는 지 2주 만인 전날 검찰이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 등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을 벌이자 민주당의 분노가 폭발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에너지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중요 정책"이라며 "이에 대한 사법적 수사는 검찰이 이제 정부 정책의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시스

전북도의회, 오늘 '올해 마지막 회기' 열어

정례회서 도청·교육청 행감,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안건 심의

전북도의회(의장 송지용)는 오늘 제377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열고 다음달 14일까지 36일간의 일정으로 마지막 회기에 들어간다.

이번 회기는 도청 및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2021년도 예산안 심사', 28건(조례안 27, 승인, 동의안 1)의 안건을 심의한다.

도의회는 특히, 오는 10일부터 22일 까지 행정사무감사 도민 제보를 비롯해 올 한해 추진한 주요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행정 전반에 대한 정책 집행상의 위법·부당한 사항을 확인하는 등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감시·통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어 오는 24일부터 전북도와 전북도교육청이 편성·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도의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위해 관련 요구

자료를 폭넓게 확보해 검토, 분석하고 상임위원회별로 업무별 연찬회 등 사전 준비를 마친 상태다.

송지용 의장은 "이번 회기는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각종 조례안 심사 등 한해를 총결산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중요한 회기"라며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 서민경제 활력 제고, 각종 재난 발생 대응과 문제점 등을 면밀하게 살피는 정책감사와 합리적인 예산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커뮤니티케어의 현황과 개선과제는?

민주 김윤덕 의원, 복지분야 전문가 등과 토론회 열어

"4차산업기술 융합 접목·활용, 돌봄 시스템에 큰 변화"

더불어민주당 김윤덕(전주갑) 의원은 지난 6일 국회에서 '커뮤니티 케어의 현황과 개선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복지분야 전문가와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토론회는 우리나라가 2025년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게 됨에 따라, 사회보장과 사회복지 전반에 걸쳐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고, 특히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중증 장애인 등을 거주지에서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돌볼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김윤덕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집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모실 수 있다면 하는 명제는, 부모님을 요양 시설로 보내드릴 수밖에 없는 열악한 지역사회 환경과, '코로나19'로 인한 집단 시설의 감염 사례를 겪으면서 더욱 간절

"윤석열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 조사하라"

추미에 법무부장관 대검찰부에 지시



추미에 법무부장관이 지난 6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을 조사하라고 대검찰청 검찰부에 지시했다.

법무부는 이날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추 장관이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배정 등 집행과 관련해 대검찰청에 신속히 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구체적으로 각급 검찰청별, 대검청 각 부서별 지급 또는 배정 내역을 직전연도와 비교해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특정 검사 또는 특정 부서에 한 번에 500만원 이상 지급되거나 배정된 내역도 조사해 보고하라고 했다.

/뉴시스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제377회 정례회 시작에 앞서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가 지난 6일 의회 내에서 연찬회를 개최했다.

도의회 환복위, 정례회 대비 연찬회

행감·예산심사 대비 쟁점 정리

제377회 정례회 시작에 앞서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연)가 지난 6일 의회 내에서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찬회는 오늘부터 진행되는 환복위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21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비해 감사 방향과 예산안 심사자료의 사전 분석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연찬회에서 환경복지위원들은 부서별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행정사무감사 분야별 쟁점사항 등을 분석하며, 의원들

간에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토론을 실시했다.

아울러, 2021년도 실·국별 신규사업 및 주요예산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지 꼼꼼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연찬회를 주관한 이명연 위원장은 "올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는 11대 후반기 의회 첫 번째로 진행되는 만큼,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도정의 추진상황과 문제점을 철저히 파악할 것"이라며 "오늘과 같은 연찬회를 통해 항상 공부하는 의정활동을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 잼버리 범업

미니 청소년캠프 개최

전북도는 지난 4일 익산 남초등학교를 시작으로 한 달 동안 10회에 걸쳐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불꽃을 위한 '2020 미니 청소년캠프'(미니 잼버리 체험)를 개최한다.

도는 올해 당초 500명 규모의 청소년 캠프를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약 30명 정도의 소규모 캠프를 10회 추진한다.

이번 청소년캠프는 평소 잼버리에 관심있는 학생들이 신청·참여했으며, 새만금 잼버리를 미리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청소년 캠프에 평소 잼버리를 접하기 어려웠던 진안군, 장수군 등 다양한 시·군의 참여를 독려해 그동안 부안군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잼버리 붐이 도내 다양한 시·군으로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확정... 이달 중 지급

전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도내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을 11만 6,456명, 3,147억 원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5~6월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접수해 지난달 말까지 자격요건 검증과 농지 형상유지 관리, 농약 안전사용 준수 등 강화된 17가지 준수사항을 점검한 결과를 반영해 지급대상자와 직불금액을 확정했다.

이번 기본형 공익직불금의 지급대상은 소규모농가(소농) 직불금 대상 농가와 면적직불금 농업인으로 구분되는데, 소농 직불금 농가는 3917,781호(전체의 32.4%), 면적직불금 농업인은 718,675명(전체의 67.6%)이다.

지원금액은 소농직불금 453억원(전체의 14.4%), 면적직불금 2,694억 원(전체의 85.6%)으로 면적직불금이 보다 많은 것으로 확정됐다.

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자금을 교부하는 즉시 시·군과 긴밀히 협조해 증액된 직불금의 예산편성과 교부, 지급대상자의 계좌 확인 등 행정절차를 최대한 빠른 11월 안에 지급할 계획이다.

/유호상 기자